



## 호랑이 'L·C·K포' 가동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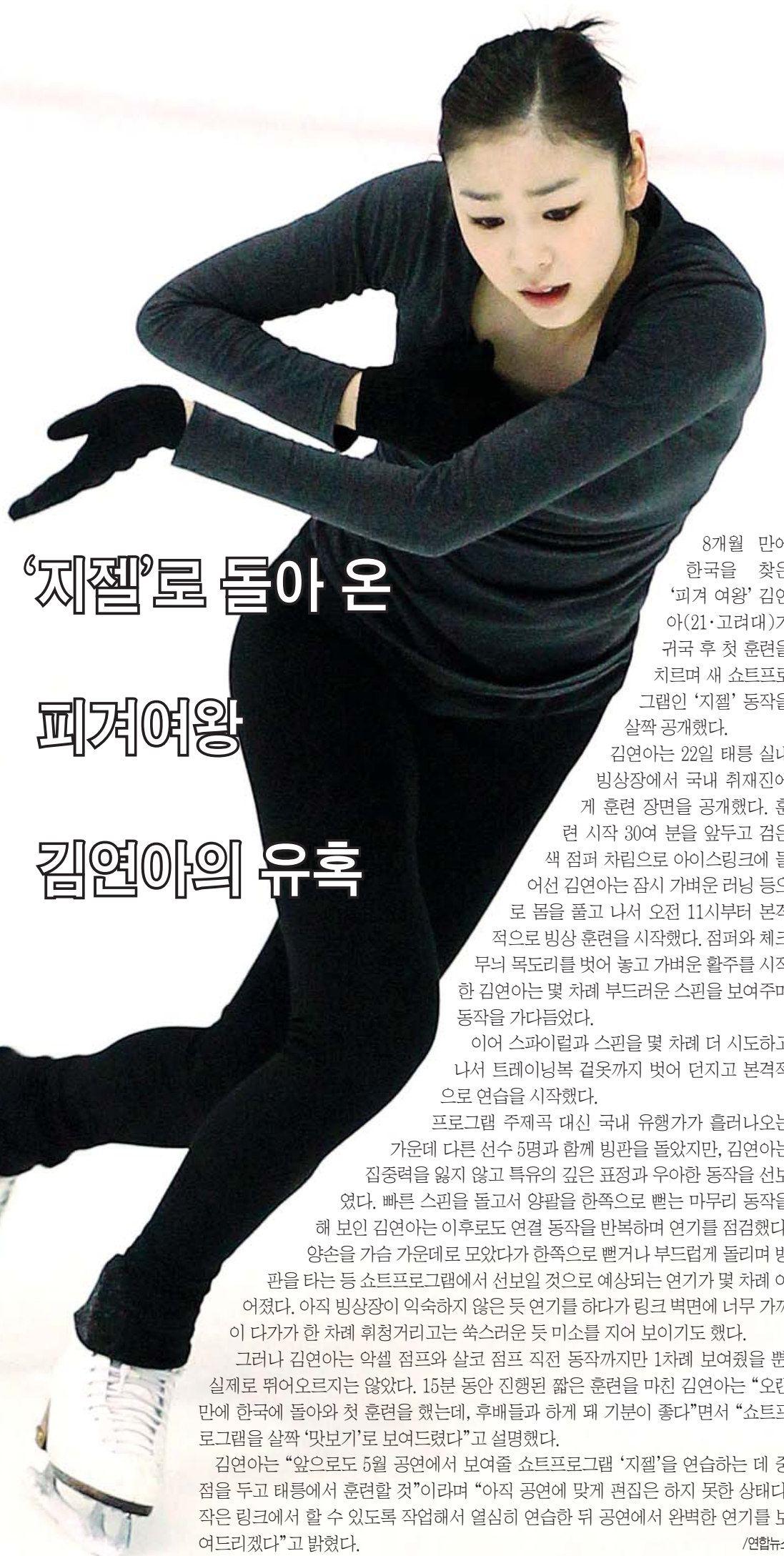
이범호·최희섭·김상현 막강 클린업트리오... 김상현 롯데전 연장 승부치기서 홈런포

이범호가 합류한 KIA의 막강 클린업 트리오는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KIA 타이거즈가 22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에서 10회 연장 승부치기에서 타진 김상현의 3점포를 앞세워 6-5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시범경기 처음으로 이범호-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지는 'LCK 클린업 트리오'가 타선 중심에 포진했다. 허리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최희섭은 지난 19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이어 시범경기 두 번째 출격에 나서 4번 자리를 지켰다. 정규이닝 공격에서는 'LCK포'의 위력이 발휘 되지 못했다. 9회까지 KIA의

클린업트리오가 작성한 기록은 9타수 1안타 3볼넷 1득점. 3번타자 겸 3루수 임무를 맡은 이범호만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뒤 4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우전안타를 터트리며 체면치레를 했다. 1루에 선 4번타자 최희섭은 볼넷과 유격수 실책으로 두 차례 출루에 성공했지만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삼진은 두 개를 기록했다. 좌익수로 변신한 5번타자 김상현도 4회초 볼넷으로 걸어나갔지만 9회까지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다. 1회초 1사 만루에서 날린 타구는 2루수 조성환의 호수비에 병살타가 되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다. 10회 뒤늦게 김상현의 파위가 폭발했다.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양팀은 10회 연장 승부치기에 들어갔다. 이종범과 홍재호가 주자로 나섰고 타석에는 최희섭이 들어섰다. 3루수 파울 플레이가 나오면서 원 아웃이 됐지만 김사울과의 승부에 나선 김상현이 투스라이크 투볼에서 높게 들어온 131km짜리 슬라이더를 밀어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김상현의 시범경기 첫 홈런으로 KIA는 5-2 역전에 성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상현의 적시타를 더한 KIA는 10회 말 이현곤의 실책이 빌미가 돼 3점을 내주는 했지만 6-5로 1점차 승리를 챙겼다. 선발로 등판한 3년차 용병 로페즈는 5회말 2사 2·3루에서 김주찬에게 1타점 적시타를 얻어맞으며 선제점을 내줬지만 5이닝동안 4피안타 1사사구 2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가벼운 어깨 통증으로 시범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던 양현종은 첫 등판에 나섰다. 양현종은 1과3분의1이닝동안 3개의 삼진을 잡아냈지만 4피안타 2사사구 1실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지젤'로 돌아온 피겨여왕 김연아의 유혹

8개월 만에 한국을 찾은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귀국 후 첫 훈련을 치르며 새 쇼트프로 프로그램인 '지젤' 동작을 살짝 공개했다. 김연아는 22일 태릉 실내빙상장에서 국내 취재진에게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훈련 시작 30여 분을 앞두고 검은색 점퍼 차림으로 아이스링크에 들어선 김연아는 잠시 가벼운 러닝 등으로 몸을 풀고 나서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으로 빙상 훈련을 시작했다. 점퍼와 체크무늬 목도리를 벗어 놓고 가벼운 활자를 시작한 김연아는 몇 차례 부드러운 스핀을 보여주며 동작을 가다듬었다. 이어 스파이럴과 스핀을 몇 차례 더 시도하고 나서 트레이닝복 겹옷까지 벗어 던지고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주제곡 대신 국내 유행가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다른 선수 5명과 함께 빙판을 돌았지만, 김연아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특유의 깊은 표정과 우아한 동작을 선보였다. 빠른 스핀을 돌고서 양팔을 한쪽으로 뻗는 마무리 동작을 해 보인 김연아는 이후로도 연결 동작을 반복하며 연기를 점검했다. 양손을 가슴 가운데로 모았다가 한쪽으로 뻗거나 부드럽게 돌리며 빙판을 타는 등 쇼트프로그램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연기가 몇 차례 이어졌다. 아직 빙상장이 익숙하지 않은 듯 연기를 하다가 링크 벽면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한 차례 휘청거리고는 속스러운 듯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연아는 악설 점프와 살코 점프 직전 동작까지만 1차례 보여줬을 뿐, 실제로 뛰어오르지는 않았다. 15분 동안 진행된 짧은 훈련을 마친 김연아는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 첫 훈련을 했는데, 후배들과 하게 돼 기분이 좋다"면서 "쇼트프로그램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다"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앞으로도 5월 공연에서 보여줄 쇼트프로그램 '지젤'을 연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태릉에서 훈련할 것"이라며 "아직 공연에 맞게 편집은 하지 못한 상태다. 작은 링크에서 할 수 있도록 작업해서 열심히 연습한 뒤 공연에서 완벽한 연기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엔씨' 제9구단 창단 최종 승인

초대 단장에 이상구씨 임명

엔씨소프트가 창단할 제9구단이 프로야구 새 식구가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2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유영구 KBO 총재와 8개 구단 대표가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3차 이사회를 열어 프로야구 9구단의 가입을 승인하고 구단주 총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 7개 구단이 신생구단의 가입에 찬성한 가운데 롯데만이 반대 의사를 확실히 나타냈다. KBO는 이른 시일 내에 각 구단주에게 신설구단 가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를 모아 제9구단의 창단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구단주 총회에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엔씨소프트는 정식 프로야구 회원사의 자격을 얻는다. 엔씨소프트는 프로야구 가입금으로 50억원을 낸다. KBO 이사회는 제9구단의 연기자인 창원시가 밝힌 2만5000석 이상 규모의 신규야구장 건립이 총회 승인 후 5년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엔씨소프트가 KBO에 별 가입 예치금 10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KBO에 귀속시킨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초대 단장에 이상구 전 롯데 자이언츠 단장을 임명했다. 이 단장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롯데에서 27년간 재직하며 구단 운영과 관리에 전문성을 발휘했다. /연합뉴스

## '재활' 안치홍 1군 복귀 임박

삼성 2군과 연습경기서 2안타 2타점 맹타

KIA 내야의 핵심 안치홍의 1군 복귀가 임박했다. KIA 타이거즈의 안치홍이 22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 2군과의 연습경기에서 출전해 2타수 2안타 2타점의 맹타를 기록했다. 어깨 수술 후 처음 들어선 타석에서 안치홍은 질점의 타격감을 과시하며 개막전 엔트리 합류 가능성을 높였다. 7회말 선두타자로 첫타석에 나선 안치홍은 중전안타를 터트리며 복귀를 자축했다. 타자 일순하며 7회 2사 1·2루 상황에서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선 안치홍은 이번에는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터트리며 타점까지 기록했다. 타석에서 합격점을 받은 안치홍은 글러브까지 끼고 2루수로 나서 공·수에서 컨디션 점검을 받았다. 안치홍은 "수술을 한 뒤 처음 타석에 들어섰는데 몸 상태도 좋고, 타격감도 괜찮다"며 "재활을 잘 해온 만큼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해서 개막전 엔트리에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별정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여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 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SCREEN GOLF**

## 두암골프존

**연중무휴 가격인하!**  
**18홀 13,000원**  
 (오전12시 티업까지 10,000원)

-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 골프존 Real 18홀 17,000원 (추가부담 없음)

필드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만나는 순간, 여러분께 리더의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 시설 5개 룸
-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룸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매니아 고객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 원손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환도로쪽 70m [햇살 5층]  
**예약 ☎ 234-9999**